

기상청 예보실에서 보낸 하룻밤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

출근한 지 24시간째.

새벽녘 졸린 눈 비비며 겨우 브리핑 자료를

완성할 무렵 기상대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떨리는 목소리로 예보 브리핑을 시작하면

몇 마디 내뱉기 무섭게 불호령이 떨어진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난 뒤

또 한 번 문소리가 들린다.

아래층 사무실을 쓰는 백발의 김 대령님이

그날따라 브리핑을 듣겠단다.

이제는 다리까지 후들거린다.

“이 중위, 편하게 해봐” 하는 말씀이 되려

온몸을 얼어붙게 한다.

10여 년 전 국방부 기상대에서 공군 기상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상예보관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군에서 3년간 경험한 예보 업무는 하루하루가 소리 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이었음에도 교대 근무는 끔찍했고, 한창 눈이 감겨올 때 쏟아지는 자료와 써름하던 기억은 제대 뒤에도 한동안 잠자리를 설치개 했습니다.

그리 되살리고 싶지 않았던 이 기억을 얼마 전 다시 경험했습니다. 예보관의 하룻밤을 체험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조남산 총괄예보관조가 야근을 서던 날 함께 기상청 예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호기심이 컸습니다. 어느덧 10년 차 기자지만, 정작 예보관의 업무를 옆에서 함께 지켜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경험했던 예보 업무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했습니다. 기상장교 선배이기도 한 조남산 과장께 던진 첫 질문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쪽잠은 자는지, 야식은 시켜 먹는지…….

곁에서 지켜본 예보실의 하룻밤에 그려한 낭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쏟아졌고, 신경 써야 할 예보 요소도 몇 배는 더 많았습니다. 밤새 예보관 한분 한분 붙잡고 힘든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개인 생활이 있을 터인데 교대 근무가 편할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예보 업무 고유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도 이런 점들입니다. 예보가 빗나가면 기상청을 타박하는 기사는 솔하게 나오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기사는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보 정확도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예보관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기사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기상청을 출입하면서 많은 예보관이 방재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언론도, 대중도 이들을 재난 담당자가 아닌 '현대판 점쟁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을 재조명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예보 정확도 역시 향상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밤새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녹초가 될 무렵 아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예전 저를 떨게 했던 김 대령님의 백발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기상장장이 된 지금도 아침마다 브리핑에 참석하시는 모양입니다. 군 시절처럼 예보실 전체를 벌벌 떨게 하지는 않을까 했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결 온화해진 청장님과 커피 한잔을 나누고 이날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기상청을 나서면서 10년 전 퇴근할 때 습관처럼 밝아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도 혹여나 내가 낸 예보가 빗나갈까 잠 못 이루고 하늘만 쳐다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전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상청 예보관이라면 부담감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예보관님들께 응원과 함께 늘 건강 잘 챙기라는 당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위) 10여 년 전 공군 기상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아래) 현재 기상청 예보실의 화상회의 모습